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술천품(述千品) ②

千千爲敵 천천위적
一夫勝之 일부승지
未若自勝 미약자승
爲戰中上 위전중상

수천의 적을 상대하여
혼자 싸워서 이겼다해도
아상을 조복받지 못하면
최상의 전사라 하지못한다

自勝最賢 자승최현
故曰人雄 고왈인웅
護意調身 호의조신
自損至終 자손지종

나를 이김이 가장 현명한 일
그러므로 사람중의 사람이라
생각을 다스리고 몸을 다잡으면
버리고 버려서 마침에 이르리라

雖曰尊天 수왈존천
神魔梵釋 신마범석
皆莫能勝 개막능승
自勝之人 자승지인

하늘이 비록 높다하지만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삿됨 따르면 하루살며 바른지혜 배움만 못하다”

신이다 마왕이다 범천·제석이라도
아무도 이겨내진 못하리라
스스로를 이긴 이에게는

月千反祠 월천반사
終身不輟 종신불철
不如須臾 불여수유
一心念法 일심념법
一念道福 일념도복
勝彼終身 승피종신

달마다 천번씩 제사를 드려
목숨 다하도록 쉬지않는다해도
잠깐 동안이나마 한마음으로
법을 생각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한생각에 짓는 그 복은
평생 제사지냄보다 수승하리라

雖終百歲 수종백세
奉事火祠 봉사화사
不如須臾 불여수유
供養三尊 공양삼존
一供養福 일공양복
勝彼百年 승피백년

비록 백세를 다 살도록에
불을 숭배하는 외도를 받들어도
잠깐 동안이나마 삼존불에
공양 올림만 같지 못하니
단한번 공양올린 그복은
저 평생의 제사보다 수승하리라

祭神以求福 제신이구복
從後觀其報 종후관기보
四分未望一 사분미망일
不如禮賢者 불여예현자

신에게 제사하여 복을 구하고
다음에 올 보답을 바란다해도
그 반의반도 바랄 수 없나니
어진이에 예배함만 같지 못하네

能善行禮節 능선행예절
常敬長老者 상결장로자
四福自然增 사복자연증
色力壽而安 색력수이안

능히 예절을 잘 지키고
항상 장로를 공경하는 이
네가지 복 절로 더하고 자라리니
수명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편안함이라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遠正不持戒 원정부지계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守戒正意禪 수계정의선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살아도
바른길 멀리하고 계율을 버리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계율지키고
뜻을 바루어 참선함만 못하리라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邪僞無有智 사위무유지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一心學正智 일심학정지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삿된 길 따르고 지혜롭지 못하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한마음으로
바른 지혜 배움만 같지 못하리라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懈怠不精進 해태불정진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勉力行精進 면력행정진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으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힘을 다하여
정진 함만 같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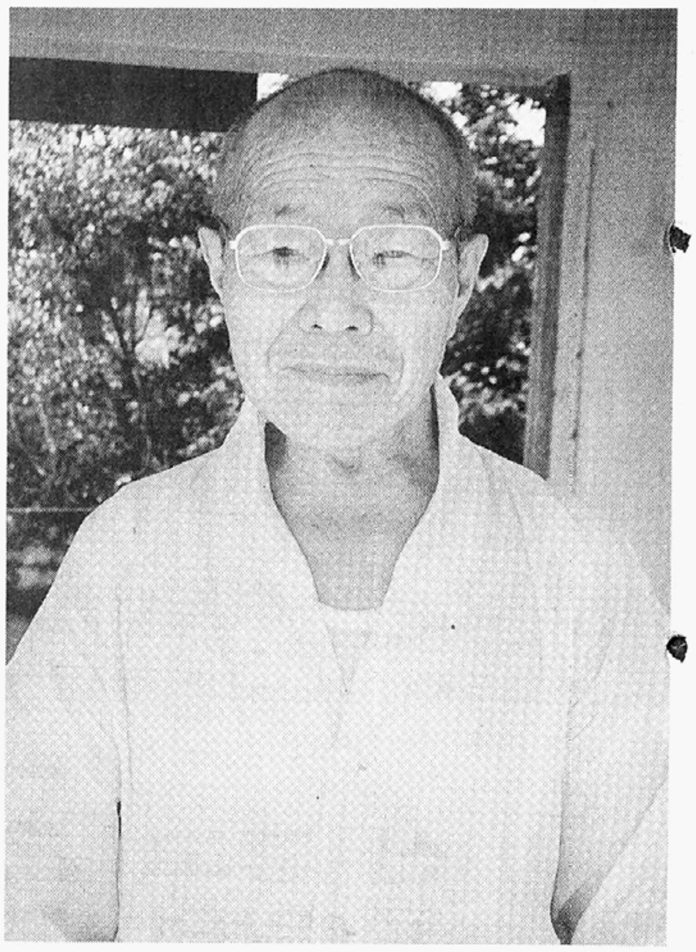
龍 眼

큰스님 수행한담

“불평하면 생각 좁아져

보경스님〈보광명사 회주〉

“선악의 중심은 자신속에 있어요 매사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옭아매고 편협되게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싱싱함을 부러워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연륜을 부러워 합니다. 젊음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고 연륜은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가치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치대로 평등한 것이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대우주의 질서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등졌느니, 자신은 옳게 살려고 하는데 사회가 자신을 삐뚤어지게 만든다느니 하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두통거리인 청소년문제만 해도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나쁜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그러나 선악의 중심은 사회가 아닌 자신속에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환경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자신을 추스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자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가 불량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은 결국 자기자신을 옭아매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지니게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닌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에 몸을 담은후 세상이치는 모두 평등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엄격하신데다 옛것을 고집하셔서 출가하기 전까지는 서당에 한문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물론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절집에 발을 들여놓게 된 연유도 이렇게 시작한 한문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다니던 서당의 훈장어른이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가는 바람에 서당이 문을 닫게 돼 하던 공부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감을 삼년쯤 익히다 보니 토가 저절로 달려 한창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때였습니다.

다섯 해 정도만 더 공부하면 그런대로 이 공부를 완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공부를 시켜 주겠다는 숙부의 말에 이끌려 숙부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속과의 인연이 안되려고 그랬는지 숙부가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숙부는 그런 나를 안타까이 여겨 수덕사에 가면 한문공부를 더 할 수 있으니 그리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덕사에는 선방만 있어 글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덕사 입승으로 있던 강월스님이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한문을 잘 배울 수 있다고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 스님의 은사이신 한암스님이 한문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지요.

약력

- 1919년 4월 충남 서산 生
- 1934년 강원 오대산 월정사 입산
- 1935년 월정사에서 탄허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 1942년 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1951년 삼척 영은사 주지
- 1994년~현재 유성 보광명사 (구 자광사) 회주

“오리다리는 짧은대로 평등하고 황새다리 긴대로 평등한 것 행자시절 한암스님 주신 법문에 그동안 불만이 일순간 허물어졌지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한암스님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한암스님은 어린 사미들을 모아놓고 마을 훈장어른처럼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오직 한문을 공부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찬 내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침 스님을 시봉하던 상좌가 다른 곳으로 가서 스님을 시봉할 기회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행자생활의 시작이었고, 내나이 16살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섯 해 정도 한문공부를 하고는 속세로 내려오겠다는 애초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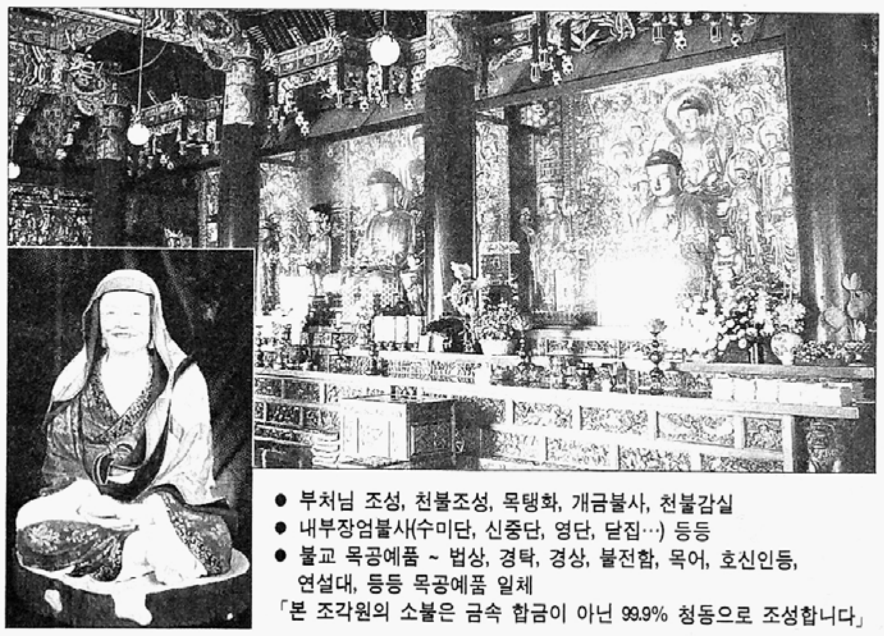
불교가 무엇인지, 절집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행자생활을 하며 한문공부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날이었습니다. 한암스님께서 내게 이런 법문을 내리셨습니다. “산은 높은대로 바다는 깊은대로 평등한 것이다. 오리의 다리는 짧은대로 평등한 것이고 황새의 다리는 긴대로 평등한 것이다.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면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불평을 하게 된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황새의 다리를 잘라 붙일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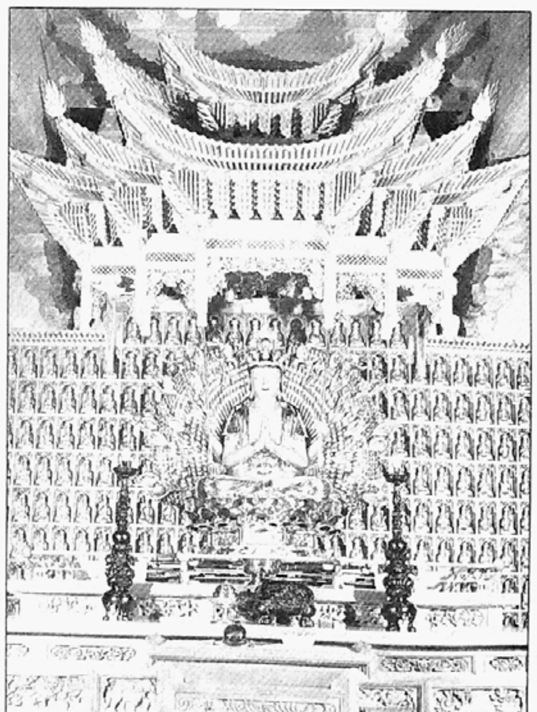
가세가 기울어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강한 불만을 품고 지내 온 터였습니다. 심지어는 상원사에 오기 전에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로 가난에 대한 불평을 가득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그동안 내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던 불만을 일순간 허물어 뜨렸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나서야 부귀빈천이 모두 다 업보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스님의 깨우침으로 출가하게 됐습니다. 불평만 하고 살면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생각은 좁아지고 마음의 눈 뜰수 없습니다.

이듬해 사월보름 한암스님의 제자인 탄허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습니다. 사미계를 받던 날 나는 이렇게 결심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